

退溪先生과 書院創設運動**

—中央의 官學的 아카데미즘 退化와 地方의 士林派哲學 擡頭—

李 佑 成*

• 目 次 •

- | | |
|--------------------|---------------|
| I. 政治와 文化의 분리 | III. 歷史主義의 입장 |
| II. 새로운 인간형성과 理想社會 | IV. 書院創設運動 |

I. 政治와 文化의 분리

「讀書曰士요 從政爲大夫」라는 이조 사대부계급, 특히 이조 초기의 官人層—사대부에 있어서는 정치 즉 문화, 문화 즉 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고려 후기 이래의 能文能吏의 소질을 이어받은 이조 사대부는 대체로 文章辭命을 주로 하는 문학과 國計 民정에 관한 經世之學에 아울러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정치의 상대적 안정과 더불어, 이러한 문학 및 경제지학은 집현전을 위시한 홍문관 예문관 등 館閣機構에 의해서 궁정을 배경으로 한 아카데미즘의 성립을 보게 되었고 이에 의해서 문자의 제정, 典章制度의 정비, 역사 및 기타 국고문헌의 편찬 등 많은 업적을 내기도 했다. 이 官學的 아카데미즘의 상징적 존재인 역대의 「文衡」—대제학을 살펴보면 權近·卞季良·鄭麟趾·申叔舟·崔恒·徐居正·成俔·南袞·李荇·金安老 등등으로 특히 15세기후반 성종조를 전후해서

* 전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19호(1978) 게재논문

그 전성에 이르렀다. 이 아카데미즘은 곧 지방으로부터 신진해온 사림파에 의해서 계속 도전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중앙의 기성세력은 쉽게 물러갈 리 없었다. 사림파의 領袖인 金宗直이 徐居正의 역제에 의해서 끝내 文衡을 맡지 못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기성세력의 계열 중에는 공신 척신 등 이른바 「勳舊」형 및 「權貴」형의 권력과 富를 소유한 집권자들이 끼어 있어, 아카데미즘은 차츰 빛을 잃어갔고 사림파의 도전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지만 기성세력의 반격에 의한 사림파의 敗北은 그만큼 비참한 것이었다. 여러 차례의 사화가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趙光祖의 이상주의적 도학정치가 좌절되어버린 1519년의 기묘사화는 당시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퇴계선생은 다른 선비들과 같이 과거로 發身해서 官界에 발을 들여 놓았으나 19세때의 目睹한 기묘사화의 기억이 사라지지도 않은 채 45세에 다시 을사사화를 몸소 겪어,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진로에 적지 않은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뒤에 계속 官資는 올라갔지만 그때마다 사퇴를 일삼았고 68세에는 대제학의 자리까지 주어졌으나 끝내 行公을 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조 사대부로서 가장 영예로왔던 文衡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아마 퇴계가 처음일 것이다. 말하자면 퇴계는 관학적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물려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앙의 淸華한 관직을 버리고 지방 향리에 돌아와 학문과 수양으로 일생을 마친 퇴계는 일찌부터 서원창설운동의 주동자가 되어, 당시 각 지방의 서원의 발기와 경영에 이상하리 만큼 적극적인 추진과 聲援을 보냈다. 아마 퇴계에게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관심은 주로 이 서원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다. 仕宦을 포기함으로써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졌던 그가 서원창설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점이다.

퇴계에 이르러 정치와 문화는 일단 분리되었으며 퇴계로부터 이조 사대부의 성격에도 달라져 가는 일면이 생긴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상당히 중시할 만한 것이다. 이 기회를 빌어 한 번 상고해 보기로

한다.

II. 새로운 인간형성과 理想社會

퇴계는 戊辰六條疏에서 제4조에 「明道術 以正人心」을 강조했다. 퇴계는 이것으로 명종의 新政에 공헌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에는 본과 末이 있는데, 군주가 몸소 실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도를 일반 국민의 생활윤리 속에 구현 보급시키는 것이 본이요 법제·문물·고금연혁에 관한 행정적 施爲는 末이라고 전제를 두었다. 이것은 중요한 발언이다. 사실 후자인 법제 문물에 관해서는 종래 관학적 아카데미즘에 의해서 할 만큼 해온 것이다. 그런데 정치는 잘 되어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 나빠져가는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그렇다고 전자인 군주의 덕성에 대해서 퇴계는 자신이 그것을 성취시킬 수도 보장할 수도 없었다. 우선 명종의 자질이 문제이지만 당시 궁중과 外廷 어느모로 봐서도 퇴계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퇴계는 구체적으로 당시 「人心」의 동태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불교의 餘害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가 노장의 虛誕을 배워 侮聖蔑禮의 風이 間作하고 管商의 術을 傳述하는 자는 없으나 計功 謀利의 弊가 痼疾로 되었으며 鄉愿들의 알미운 습성은 未流의 아부아침으로 흐르고 俗學들의 그릇된 방향은 科擧길로만 줄다름침이 療原의 불과 같다. 뿐 아니라 출세의 벼슬길에 기회를 노리고 틈을 타는 反側欺負의 무리가 없지 않다.

이렇게 말한 뒤에 「今之人心은 不正이 甚矣라」고 규정하였다. 퇴계는 이어서 이러한 종류의 인간들이 자칫하면 군주의 주변에 모여들어 군주를 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심 그대로의 정신 풍토 위에서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도 정치를 옳게 할 수 없는 것이니, 기

묘사화의 趙光祖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 우리가 유의할 것은, 퇴계가 말한 인심이라는 것은 온나라 백성들의 전부의 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군주의 주변에 모여들 사람이란 적어도 사대부계급에 속한 사람, 내지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군주의 덕성에 의해서 이들 사대부계급에 속한 인간들의 심성을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랄 수 없었던 퇴계는 그렇다고 체념으로 방관만 할 수도 없었다. 퇴계는 달리 「淑人心 開正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인심을 맑게 착하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正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正學이란 올바른 학문, 구체적으로 참다운 성리학을 의미한다. 참다운 성리학을 통해서 사대부의 심성을 바로잡고 이 땅의 정신풍토를 정화시킴으로써 이상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퇴계는 우리나라를 「東魯」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동방의 魯나라라는 뜻이다. 노나라는 공자의 조국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중국에 있어서 문화의 연원지이며 禮義之風에 젖어있는 나라로서 공자가 항상 칭송하기를 「齊나라가 한 번만 변하면(향상되면) 노나라의 수준에 도달되고 노나라가 한 번만 변하면 도의 나라, 진리의 나라에 도달될 수 있다」라고까지 했다. 퇴계가 우리 나라를 동노라고 말한 것은 옛부터 중국에서 우리 나라를 「군자의 나라」라고 불렀던 데에도 까닭이 있겠지만 항상 현실을 긍정적으로 대해 오던 그는 당시 인심에 관한 어두운 면을 가차없이 폭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고 미래에의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시를 썼다.

末世天無改 말세에도 천도는 틀림이 없고
 吾東聖欲居 우리나라는 성인이 살고자 했던 곳
 魯風猶可變 노나라 기풍 이제라도 변할 수 있거니
 箕訓詎成虛 기자의 교훈 어찌 우리 헛되게 하라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지만 하늘의 섭리는 한결같이 있을 것이고 노

나라와 비등한 우리 나라의 기풍은 이제라도 발전적으로 변해져서 진리의 나라에 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진리의 나라로 끌어 올리려면 먼저 인심을 바로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正學, 곧 참다운 성리학을 필요로 한다. 성리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지는 오래 되었으나 퇴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다운 성리학과 성리학자는 극히 드물었다. 퇴계는 우리 나라 역사상의 인물 및 동시대 학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을 많이 했고 金宗直 趙光祖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위의 시의 다음 구절은 이러하다.

前輩文華勝 앞사람들은 文華에만 勝했고
 今人術業疎 지금 사람들은 術業이 다 성글다
 有誰能自奮 누가 있어 능히 스스로 분발해서
 躬道向經書 몸소 진리의 체득을 위해 경서에 파고들 것인가

역대 文衡錄에 실린 사람이나 기타 先輩들은 문장이나 外華에 힘썼을 뿐이고 근래 사림 중에 차차 내실을 찾아, 성리학으로 알려진 분들이 있으나 학술면에서나 사업면에서 다 미흡한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뜻있는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일대 역사적 자각 밑에 참다운 공부, 참다운 성리학에 邁進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Ⅲ. 歷史主義의 입장

누가 스스로 분발해서 경서에 파고들 것인가 라고 한 이 누구(誰)는 바로 퇴계자신일 것이다. 따라서 뜻있는 사람의 일대 역사적 자각은 바로 퇴계의 자각이며 그가 自擔한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경서에 파고든다고 해서 옛날의 일반 經儒들이나 학구적 경학에 떨어져 버린 후세학자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三經四書의 어구 하나하나에 대해 우리말을

섞어 「釋義」를 만들 정도로 꼼꼼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경서 속에서 추구한 것은 성현의 가르침에 의한 진리에의 체인 체득이다. 평소 禪의 契悟를 강력히 배제하고 평이한 일상생활에서 格致 誠正의 眞積力久를 거쳐 도달한 그의 境界는 경서 속에 있어서의 추구가 바로 인간적 진실에의 추구하고 일치됨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퇴계학이 주자학을 가장 성실히 계승한 것이면서도 주자학과에 대해서 陳北溪의 『性理字義』式 분석적 해석에 의한 破碎된 지식을 비판하고 眞西山의 『心經』에 의한 心の 성찰과 操存의 공부를 존중한 것은 퇴계학이 내면세계에의 沈潛을 통한 인간적 진실에의 추구로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퇴계학이 본체론적 우주관에 큰 비중을 두어, 洒掃應對를 가르칠 초학자에게 태극을 가르친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였지만 그의 철학은 主知的인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정감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主意主義에서 체인 체득으로 도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心은 神妙不測의 것이다. 따라서 심학은 어렵고 위태로운 것이다. 조금만 잘못되면 그릇된 길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퇴계는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남처럼 지름길이나 미지의 새 길은 찾지 않고 古人의 경험에 의한 정당한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다. 그에게 이런 시조가 있다.

古人도 날 못보고 나도 고인 못뵈
고인은 못 뵈어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니 아니 예고 어이리

고인의 예던 길을 나도 예다는 퇴계의 인생행로는 곧 그의 인간적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의 행로이기 때문에 끝없는 체인 체득의 과정을 통한 자기확신의 길이며 실천과 창조의 길이고 맹목적 추종의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흔히 심학을 하는 이들이 자기 혼자서 깨달아, 시공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퇴계는 고인의 경험을 토대로한 계승과 발전을 올바른 학문의 길로 설정하였다. 여기 퇴계의 역사주의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

고인의 예던 길은 형식적인 길이 아니고 인간적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宋史의 道學傳과 같은 一般史적 서술을 넘어선, 사상사 정신사적 접근을 통한 내면적 이해가 요구된다. 주자를 필두로, 그 후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놓은 『宋季元明理學通錄』은 퇴계의 역사주의의 산물이며, 중국의 유명한 『明儒學案』 『宋元儒學案』들 보다도 시대적으로 훨씬 앞서는 것이다.

IV. 書院創設運動

인간적 진실추구의 학으로서의 참다운 성리학이 역사주의에 의해 정당성이 보증되기도 한 것이지만, 새로운 인간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 땅에 있어서의 참다운 성리학의 토착화가 필요했다. 당시 각 지방에는 의욕적인 신진사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 우선 그들을 성리학의 傘下에 모여 들게 하고 이어 참다운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이다. 퇴계의 서원창설운동은 곧 이러한 신진사림들을 흡수하여 참다운 공부를 시킬 환경조성운동이었다.

당시의 학교시설로는 매군현마다 향교가 있고 중앙에는 최고국학으로서의 성균관이 있었다. 향교는 이때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이 퇴화되고 있었지만 성균관은 아직 국학으로서의 면모와 권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일반적 교육문제라면 의례히 향교의 재건과 강화를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퇴계는 당시의 향교와 국학에서는 참다운 공부가 불가능하며 도리어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향교와 국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서원이야말로 성리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퇴계는 일찍 上司에게나 많은 知友와의 서한에서 그 이유를 설명했거니와 이제 그 이유를 요약해보면

첫째, 향교와 국학은 지방도시나 서울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분답스러운 반면, 서원은 대체로 溪山이 淸幽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공부할 수가 있고

둘째, 향교와 국학은 나라의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고 과거와의 관계에서 옳은 학문에 潛心할 수 없는 반면, 서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세주의 공리주의를 떠나 순수한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둘째 번의 이유는 서원의 가치를 결정적이게 한 것이다. 당시의 향교와 국학이 과거와의 관계에서 출세주의 공리주의로 쏠리고 있음이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서원은 일단 모든 세속적인 관련에서 떠나, 올바른 人材를 양성해냄으로써 지방에서 새로운 정치에너지가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퇴계는 풍기군수시절의 백운동서원의 확충을 위시해서 서원 창설 운동에 적극성을 띠었고 서원을 통한 성리학의 토착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퇴계의 생존시에 이미 적지 않은 서원이 설립되었고 그것은 대부분 퇴계에 의해 命名되거나 記文이 붙은 것들이나 퇴계의 書院十詠詩에 의하면 9개 서원 중에 해주 강릉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지방의 서원들이다. 우리 나라 서원초창기에 있어서의 퇴계의 영향력을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관학적 아카데미즘의 전통을 물려받기를 거절하고 지방에서 서원을 통한 성리학의 토착화와 출세주의 공리주의를 떠나,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삼았던 퇴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퇴계의 뒤에 지방 인재들의 진출에 의해 사림정치가 본격화되고 성리학적 청의(淸議)가 정치를 주도했다는 사실이고 하나는 학자가 공부를 하는 것은 과거를 거쳐 출세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학문 그것을 究極의 사업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통념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정치와 문화의 분리이다.